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사무실 063-859-2400 ~ 241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8월 6일 월요일 (음 6월 25일)

제210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폭염 장기화... 후속피해 예방책은?

### 송하진 전북도지사, 농작물 피해 예방 지시... 무더위 대응 소방활동 추진상황 보고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일 폭염 장기화에 따른 농작물 후속피해 예방책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폭염 대응과 관련한 소방활동 추진상황을 꼼꼼히 보고받고 격려했다.

송 지사는 이날 간부티어임을 통해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앞으로 농작물 후속피해(병해충 발생 등)가 가장 걱정된다면서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서둘러 강구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재의 폭염상황 대처도 당연히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 영향을 미칠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실국별로 미리 꼼꼼히 따져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예비비 투입도 적

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송 지사는 이어 이날 오후 3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119종합상황실을 직접 찾아 소방활동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폭염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면서 소방대원들을 격려한 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에서는 현재 2018년 7월 전북 폭염·열대야 일수가 '평년의 3배'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폭염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폭염대응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폭염대응활동으로는 첫째, 도내 전지역에 '폭염119구급대' 128대를 지정해 폭염구급장비 9

종 7,536점을 비치하고 구급대원에게는 온열질환자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폭염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 또, 기온이 높아지면서 말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도내 전지역에 126개대의 '벌집제거 출동대'를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2018년 7월 말 현재 2,486건을 출동하였으며 7월에만 1,962건을 출동해 전년 동월(1,451건)과 비교하면 약 35.2%가 증가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피서철을 맞아 물놀이 중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물놀이위험장소12개소(해수욕장 7, 계곡·하천 5)에 '물놀이 안전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안전요원 집중 배치)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밖에 살수요청 시 도로 등에 물을 뿌려 주변온도를 강하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등지를 방문하여 폭염 시 행동요령 및 건강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뭄지역의 지역주민에 대한 '식수 지원'과 농업용수, 가축폐사 대비 축산농가에 대한 살수지원, 119소방대원의 출동 빈도수가 높아짐에 따라 현장 활동 대원 보호를 위한 물품(얼음조끼, 쿨링스카프, 토시등)을 확보해 지급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무엇보다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고, 후속 농작물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성 기자



“더위엔 물놀이이지” 지난 3일 오후 전주시 농촌진흥청 도담 어린이집 원생들이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전북우정청, 택배 방문접수 일시 중단... 17일까지

### 폭염으로 인해... 우체국 내근직원이 대신 접수 국민불편 최소화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24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 20일 이상 지속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햇볕노출이 많은 택배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택배 방문접수(픽업)'를 오는 17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전북지방우정청은 택배원이 우편

물을 배달하며 고객을 방문해 택배를 접수했으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또한, 택배원이 픽업하던 우체국 내근 직원 등이 최대한 대신 접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어 방문 택배를 원하면 사전에 관할 우체국에 문의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단 반품택배의 픽업은 변동 없이 이뤄진다.

김성철 청장은 "사상 최악의 폭염 지속에 따른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근직원들을 통한 우편물 배달지원 실시 및 온열질환 예

방용품 보급 등 폭염대책 마련을 긴급 시행" "폭염에 대비해 우편배달 및 택배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택배원의 휴게 시간을 1시간 연장해 운영, 이번 방문접수 중단도 폭염에 따른 우편물 배달 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택배원 업무경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 “병원 발전에 써주세요”

예수병원 장례식장 홍성연 대표는 3일 예수병원 권양영 병원장에게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전달했다.



홍성연 예수병원 장례식장 대표 예수병원에 발전기금 1억 전달

홍성연 대표는 발전기금을 후원하며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있는 예수병원이 올해 '개원 120주년'을 맞이해 작은 정성이지만 예수병원 발전을 위해 후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12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손길로 쓰임 받는 예수병원'이 더욱 크고 아름다운 발전으로 이어가길 바랍니다"며 "언제나 감사 마음을 가

지고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예수병원과 함께 하겠습니다."며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05년과 2010년에 각각 예수병원 발전기금 1억원을 회사에 예수병원 설립 이념인

의료와 선교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예수병원 발전을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홍성연 대표는 '전주포남로타리클럽 3670지구 회장'을 역임 중, 예수병원 암환자후원회에 국제상호보조금 기증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견인차보관소 팔복동으로 확장 이전

### 옛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장 부지를 바꿔 6000㎡ 부지에 최대 300여대까지 수용 가능

전주시 팔복동 옛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장 부지가 도심 내 방치된 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견인된 각종 차량을 보관하는 견인차보관소로 탈바꿈했다.

시는 최근 견인차보관소를 기존 덕진동 조경단 입구에서 팔복동(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427)으로 확대 이전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기존 견인차보관소는 3,000㎡ 부지에 132대 정도 밖에 수용하지 못해 견인차량 보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로운 견인차보관소는 6,000㎡ 부지에 최대 300여대까지 수용가능해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민들의 민원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견인차보관소 이전으로 인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 지도검색

의 위치를 수정하고 전주시 35개 동에도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등 견인차보관소 이전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삼천동으로 옮겨지면서 빈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한 결과 견인차보관소를 이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유경수 전주시 교통안전과장은 "그간 견인차보관소 부지가 협소하여 방치차량 처리 등 견인업무 처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보관소가 팔복동으로 확대 이전함으로써 주요 도로변 불법 주차 단속차량이나 방치 차량 등에 대해 보다 신속히 처리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군산 문화재 야행**  
GUNSAN CULTURE NIGHT  
여름밤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  
08.11[SAT] ~ 08.12[SUN]  
18:00-23:00 근대역사박물관 및 월명동 일원  
2018. 야경, 야로, 야시, 야하, 야숙, 야식, 야침, 야시

주최: 군산시, 문화재청,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예술과 0631454-3273 www.culture-nightgunsan.kr